

46개국 스타트업 한자리… 2000건 이상 비즈니스 매칭 추진

컴업 2025 개막

올해 슬로건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
한성숙 장관, 사우디 등 협력안 모색
‘K-스타트업 왕중왕전’ 등 행사도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5’가 전세계 46개국에서 275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0일 개막, 사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호주 등 7개국은 국가관을 운영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첫날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AI 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컴업의 슬로건은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이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기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기업과 대·중견기업 같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 등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5’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컴업 2025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컴업 2025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타렉 아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올해 중기부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에 휴메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국을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5월 설립한 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사우디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개막식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타렉 아민 대표는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쌓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AI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연사로 나온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조연사로 참여, 혁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창업가로서의 여정을 공유했다.

컴업에선 또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중견기업 총 35개사도 참여,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총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 스타트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고도화했다. 투자자 부스와 대·중견기업 부스를 운영해 스타트업이 사전 매칭 없이도 이들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에선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의 창업기획자(AC)로 뽑혀 중기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선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역시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컴업 기간 중엔 AI 스타트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을 가리는 ‘2025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등이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이노텍, 스마트 카드시장 본격 공략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개발 성공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 구현

LG이노텍이 ‘차세대 스마트 IC(직접 회로) 기관’을 앞세워 성장하는 스마트 카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 기술을 강점으로 글로벌 고객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성능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집적회로) 기관’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IC 기관은 개인 보안 정보가 담긴 IC칩을 신용 카드, 전자여권, USIM 등 스마트카드에 장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ATM, 여권리더기 등에 접촉시키면 IC칩의 정보를 전기신호를 통해 리더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LG이노텍이 선보이는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은 기존 대비 탄소 배



LG이노텍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LG이노텍

출을 약 50% 줄인 친환경 제품이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8500톤을 줄여, 약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LG이노텍은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이 제품에 적용했다.

기존 스마트 IC 기관은 팔라듐과 금 등 귀금속을 사용해 표면에 도금을 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리더기와 접촉하는 기관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고 안정적

인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팔라듐과 금은 채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재료 가격이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나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 공통의 과제였다.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에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선도 업체에 공급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또한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관련 국내 특허 20 여건을 확보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KCC글라스,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 개발

4중구조 대비 무게 절반 가까이 줄여

KCC글라스가 다중(3·4중) 복층유리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량 다복층유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10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중간 유리로 2.1mm 두께의 얇은 유리를 적용한 다중 복층유리 구조다. KCC글라스는 관련 기술에 대해 지난해 12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KS 등 시험성적서를 취득해 성능 검증도 마쳤다.

KCC글라스가 개발한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에는 중간 유리로 화학강화 방식의 강화 처리와 단열을 위한 로이(Low-E) 코팅을 입힌 2.1mm 유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내구성과 단열성은 유지하면서도 4중 복층유리 구

조 기준으로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여 시공 편의성은 물론 창문 개폐성까지 크게 높아졌다. 또한 2.1mm의 얇은 유리에도 로이 코팅을 입힘으로써 복층유리를 구성하는 모든 유리를 로이 코팅이 적용된 유리로 구성할 수 있어 ▲단열성 ▲색상 ▲투과율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물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의 핵심은 2.1mm의 얇은 유리에 화학강화 방식의 강화 처리와 로이 코팅을 적용해 다중 복층유리의 구조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라며 “동일한 내구성과 단열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건축용 유리의 경량화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내년 中企 관세·물류 부담 줄인다

수출바우처 등 6867억 투입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내년 총 6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사를 발굴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예산이 226억원 많은 총 1502억원으로 늘어난 수출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한다.

올해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 적용한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2배 상향(3000만→6000만원) 조치도 연장한다. 지원대상에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포함했다.

‘4대 K-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500곳 발굴을 위해 올리브영(뷰티), 무신사(패션), 신세계디에프(라이프), 롯데마트(푸드)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IR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K-뷰티 지역 수출거점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해 제품 전시, 체험, 바이어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시범지역은 2030년까지 8곳 정도로 확대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진출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198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약 95억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한다.

/김승호 기자

나노캠-위드마스터스, 위생분야 기술 협력

‘가정용 오피수 시스템’ 개발 MOU

귀뚜라미그룹 전자정밀 계열사 나노캠이 위드마스터스와 ‘가정용 오피수 시스템 개발 협력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나노캠은 위드마스터스가 미국 게이트즈 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발 중인 차세대 위생 시스템 ‘RT(Reinvented Toilet)’ 프로젝트에 주요한 기술 협력을 제공한다. 나노캠은 RT 제작에 필요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배풍기, 은나노필름 등 주요 정밀 전자부품을 공급한다. 양사는 이번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향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귀뚜라미 냉난방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영환 나노캠 대표(오른쪽)가 김중호 위드마스터스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뚜라미

후 RT 기술을 적용한 가정용·반려동물 위생 솔루션 등 추가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